

CROSSWAYS NEWS LETTER 178호 (2025-02)

2025년 5월 3일 withyou91@hotmail.com. 카카오톡: mizoram91

평강의 하느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마서 16장 20절)

미조람에서의 사역과 삶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며 응원해주시는 동역자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이 차가운 땅 위로 연일 내려앉으며 겨우내 딱딱하고 어두운 땅속에 묻혀서 가려졌던 생명의 기운에게 이 땅 위로 안심하고 얼굴을 살짝 내밀며 일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미조람에서도 이런 생명의 기운들이 활짝 퍼지면서 미조람의 시골 농부들의 손길을 바쁘게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것처럼, 저도 엘림하우스(농장) 개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며 몸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봄기운이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계신 장모님에게도,
이곳 미조람의 4역지에도 임하시길 기도하는 지금,

한국에서, 이웃 나라에서, 이웃 주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생명을 실어 나르는 봄기운과는 전혀 다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인도에서는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과의 일촉즉발의 전쟁의 기운이 뿔어져 나오고, 선그지에서는 한 주간동안 느닷없이 내리는 폭우로 산 위의 바위가 떨어지며 도로를 덮쳐 지나가는 일가족이 납작하게 찌그러진 차량에 끼어 사망한 안타까움의 소식도 들려오고, 이웃 주인 마니푸르주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 부족 간의 싸움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몰려오는 듯합니다. 죄의 유혹, 절망적인 현실, 끝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출 14:14). 내가 싸워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며, 하느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느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승리로 이루어가신다는 신뢰의 선언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미조람의 4역 나눔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1. 4역지 방문(1월 30일 - 2월 10일까지)

이 기간에 콜카타와 디마푸르 그리고 코히마를 방문하여 하느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콜카나 구원세미나 참관(1월 30일)** : 디마푸르로 가는 여정 중 콜카타를 경유하는 중 인천 교회의 김진옥 목4님이 진행하는 벵갈리 목회자와 4역자 40여 명을 위한 세미나(구원의 확신)에 하루 참석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 **크라이스트포아시아(Christ For Asia) 신학교 집회(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특별성회의 강사로서 45명의 신학생에게 ‘하느님의 종으로서의 삶’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온 신학생들이 부족한 종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학생들 각자에게 안수하며 하느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하늘샘교회 선교팀(26명)과 함께(2월 3일부터 10일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와 두



곳의 초등학교(필라, 하늘샘- 나가랜드주)와 유치원(아쌌주)의 아이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일일 네팔리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네팔리 교회(금요일 저녁)와 수미 부족의 교회에서의 집회(3회-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과 저녁))에 함께 참여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디마푸르에서 늘 그리워하던 친구인 태국에서 4역하는 이성상 선교사와 선교지 초창기에 어려웠을 때 큰 도움을 주신(미조람에 두 자매를 파송)정홍호 총장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조람에서 늘 혼자서 지내며 사역하는 것에 익숙했던 저에게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누렸던 시간이 되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2. 엘림하우스 개발 공사— 1월부터 진행된 개발 공사(구릉지 깎기와 농장 연결도로 만들기)는 선교지 방문과 한국 방문(3월)의 이유로 계획보다는 더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월 작업 마친 후

농장 연결도로 만들기

농장내 나무 벌목과 목재 만들기



4월 들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작업을 한 결과 중장비 작업은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넓은 농장의 터를 만들기 위해 구릉지를 깎는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흙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그냥 농장의 계곡으로 마냥 흘러내리며 작업을 했더니 계곡에 흙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계곡을 막는 효과로 계곡 앞에는 큰 연못이 생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성된 연못의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넘치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연못이 되어야 생명을 담을 수 있는데 사해처럼 물을 품고 가두어 놓기만 하는 죽음의 연못이 되어버리는 공사의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해결책을 잘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현장 실사팀과의 만남(2월 21일)

3. HIV 감염가족들을 위한 사업 최종 통과— 지난해에 지역 단체의 발전을 돕는 루트투브랜치(Root To Branches) 후원단체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가 통과되어 2차 면접을 1월에 영상으로 하여 3차 실사 조사에도 선발되어 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사를 나온 조사단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보충 서류를 업데이트 한 결과 4월에 최종적으로 저희 HIV 감염 가족 단체(MSPN+)가 앞으로 3년간 년 차별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4. 한국방문 (3월 6일부터 - 4월 7일까지)

4년 전 폐암 말기로 판정을 받은 장모님이 2월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집에서 지내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소식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도착하게 될까 걱정하며 입국하였는데 저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장모님이 특별한 기운을 내셔서 그랬는지 호스피스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마냥 병원에서 있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한 달의 시간으로 감사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인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에서



영남선교회 모임



어머니와 함께



총회 파송 훈련 교수님들과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제게 주어 주었습니다. 은퇴 목4님들의 모임으로 인도를 위해 기도해주시며 응원해주시는 영남선교회의 월례회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참석하는 기회가 있었고, 총회 선거 훈련을 받는 예비선교사들과 이들을 교육하는 교수 선교사님들과 만남, 수고하는 선교사라고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어주시며 특별한 먹거리로 격려해주신 김진옥 목4님 김희현 목4님과 이필산 목4님 그리고 정명철 목4님, 범양선교회의 황상호 목4님의 사랑과 배려, 선교지에서서의 큐티 사역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힘을 주는 친구 김해진의 배려와 목동명성교회에서의 선교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5. 마니푸르 고아 난민 - 3월 15일 마니푸르로 이사

지난 12월에 아이졸에서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가까운 참파이로 이사를 갔던 고아 난민 어린이들이 미조람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마니푸르주로 완전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상태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6. 살롬 큐티 글로벌 세미나(4월 21일, 28일) -

미조람에서의 새로운 사역으로 준비하면서 큐티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선생님들의 영상 세미나에 살짝 끼어들어 큐티 사역의 기본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조람에서도 큐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배우고 느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길 원합니다.

7. 소망의 집 4월 29일 -

3개월 과정의 재활교육 수료자(3명) 수료증 수여식



8. 청운교회 청년들(19명)의 미조람 방문(7월 8일부터 17일까지) 예정

누구도 쉽게 찾아오기 힘든 미조람에 8년 만에 드디어 팀이 방문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팀 방문인 만큼 미조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긴 여정 속의 안전과 돌보심, 준비하는 청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큰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하며 그 만남을 기대합니다.

미Jo람을 위한 기도

1. 미Jo람 4역들이 하na님께서 저희의 행할 바와 같 길을 보여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2. 하Na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되는 미Jo람에서의 4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3. 사람들에게는 하Na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는 4역이 될 수 있도록
4. 청운교회 청년들의 미Jo람 방문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5. 김상수 박은숙 부부의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9일부터 - 4월 30일까지)

고비교회 10만원 김해진 50만원 도림교회 선교관 지원(한국방문)

목동명성교회 50만원 범양선교회 20만원

어번오펠라이카 교회(베다니목장 25,877루피 300달러)

영남선교회 20만원 이필산목4 30만원 장형송 커피 원두 정명철목4 50만원

하늘샘교회 4만루피(약 70만원), 크라이스트포아시아 신학교(장*육) - 항공료 및 숙식 지원



토요기도모임



부활주일 식탁나눔



푸시팍 펠로십 예배